자신을 딛고 스스로 피어나라

지금 이 세계戒

④ 오늘을 살아가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5월의 설레는 휴일과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이 어느새 지나갔다. 휴일을 앞두면 설레는 마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여러 계획도 준비하지만, 정작 휴일이 되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나간 휴일에 대한 아쉬움과 왠지 모를 피로감이 몸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도 휴일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고 다시금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일상의 한 줄기 광명과도 같다.

불교인에게 이런 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다. 올해는 특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불교인은 물론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연등회에 참석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몸을 나투신 뜻을 기리며 전야제를 신나게 맞이했다. 또 부처님오신날에는 가까운 절에 들러 연등을 밝히고 소중한 인연들과 정겹게 절밥 한 그릇을 나누며 부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중생에 대한 마음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장면에 그대로 담겨 있다. 태자 고마타 싯다르타를 임신하여 출산을 위해 고향을 찾아가던 어머니 마야부인은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산통을 느끼게 된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무우수(無憂樹)라는 나무에 기대어 있을 때 태자가 마야부인의 겨드랑이(혹은 옆구리)를 통해 태어난다. 겨드랑이에서 태어난 이야기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태자의 신분이 브라흐만의 상반신에서 태어난 크샤트리아였기에 그 신분에 맞는 탄생을 나타내기 위해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태자는 동남서북 사방으로 일곱 걸음씩 걸은 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爲尊) 삼계개고아당안지(三界皆苦我當安之)'라는 탄생게를 읊는다. 이 탄생게는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깨달을 법이) 가장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태자) 마땅히 안락하게 하리라'라는 중생 제도의 선언이었다. 갓 태어난 자신이 앞으로 수행을 통해 법을 닦고, 그 법을 통해 모든 세상의 중생을 안락으로 이끌어 모두가 행복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는 이후 카필라성 안에서 태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던 중, 성 밖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동남서북의 사방으로 나가 동문에서 노인을, 남문에서 병든 이를, 서문에서 장례 모습을,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나며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본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 이를 부처님의 출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여기며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 부른다.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과 삶에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필연적 괴로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멀리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자신의 걸음으로 들어가 직접 대면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해결하였다. 처음의 탄생 설화에 나오는 일곱 걸음은 육도윤회를 벗어난 자신만의 삶을 일곱 번째 걸음으로 나타낸 것이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윤회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부정하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다'는 가르침을 마지막 일곱 번째의 그 한 걸음 속에 담아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그리고 사문유관에서 카필라성 안에서 안락하게 보호받고 갖춰진 삶만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준비하고 갖춘다고 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기에 자신이 그것을 마주하고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 때론 하루를 살아가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살기도 한다. 부처님의 탄생과 사문유관은 우리에게 이렇듯 무의미하고 무의식적으로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준다. 불교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불변의 '나[我]'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태어난 '나', 살아가는 '나', 지금 이렇게 있는 '나'라는 것이 명백하게 내 눈앞에 있건만, 무슨 내가 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나'가 없다는 '무아(無我)'는 그런 존재적 '나'는 어디에도 없지만, 수많은 인연과 자신의 역할을 통해 이뤄진 '나'는 인정한다. 즉, 태어남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내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태어남으로 내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린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여야 하고, 태어났을 때 이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태어났을 때 이미 삶의 모든 것이 결정돼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태어남이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린 왜 노력해야 하고, 왜 배워야 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가? 오히려 이런 모순에 떨어지게 된다.

싯다르타, 탄생게로 중생 제도 천명

일곱 번째 발걸음, 주체적 삶의 선언

사문유관으로 삶의 근본 고통 직면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태도 보여

불교, 의식 없이 허비하는 삶 일깨워

스스로 방향 찾아 개척하는 삶 강조

그래서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참된 '나'인 '진아(眞我)'를 설한다. 결정론적인 삶도 아니고 신에 의해 만들어진 자신도 아닌, 부모의 곁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자신이 살아오며 친구들·인연들과 어울려 영향을 받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직업을 가져 삶을 꾸려가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다운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참된 살아감에 대한 가르침은 계율 속에도 담겨 있다. 〈범망경〉 '제35경계'인 '불발원계(不發願戒)'에서는 불자라면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가져야 하고 … 여법하게 수행하기를 바라며 …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 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렇게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라고 설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변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 이 추구하는 마음을 발원이라 하며, 서원(誓願)을 내는 것이 발원인 것이다. 목적 없이 살아가면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변해간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저 방일하게 방치한 것이다.

서원은 목적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다. 방향이 정해져야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만이 앞서면 먼 곳에 있는 목적이 점점 멀어지고 결국 다가갈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목적에 앞서 방향을 정하면, 또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방향의 길 끝에서 그토록 바라던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心]을 닦는다고 하지만, 어디서나 수심(修心)이 아닌, 행(行)을 닦는 수행(修行)을 가르친다. 행이 닦여 쌓이면 모든 것이 따라 쌓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행을 하는 것은 자신이다.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행을 무의미, 무의식이 아닌 명확한 발원을 갖고 행하자. 의미와 의식을 자신이 붙들고 자신의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자신의 삶일 것이며, 그 하루는 자신의 길이 되어 그 길 끝에서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깨달음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해인사의 법보전에는 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주련이 걸려 있다.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 불도를 수행하며 그토록 이루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깨달음과 '깨달은 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대장경의 정수를 담아 놓은 것이라 하면 무언가 그럴싸하고 신비한 것을 생각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당연한 그 가르침이 바로 '법(法)'이다.

'여법(如法)', 즉 법다운 삶이란 오늘의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자신을 둘러싼 인연과 일상을 알아차리며 살아있는 것이다. 삶은 누군가가 만들거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네 개의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직면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마주하고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라는 가르침이다.

내 삶에서 내가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연이고 내가 한 일이기에, 그것들을 마주하고 확인하며 한 걸음씩 오늘을 살아가자. 대웅전(大雄殿)의 큰 영웅은 바로 나로부터 승리하여 마침내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우리 자신이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주 지 탄 대
사부대중 일동
세종특별자치시 모룽지로 94
광제사 전화 044)850-3190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전화 044)850-3100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주 지 성 안
사부대중 일동
본원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82길 11 삼우빌딩 402호 전화 02)445-8484
분원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4길 13-51 전화 02)445-8484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 마음에도 꽃을 피운다."
- 대행선사 법어 -
사부대중 일동
제주시 황사평 6길 176-1(영평동)
전화 064)727-3100
홈페이지 www.hanmaum.org